

經濟成長과 經濟學의 反省

——「歷史的 人間」의 再認識——

金 俊 輔*

I

經濟成長의 計劃的 推進과 더불어 그의 逆效果로서 「인플레이션」과 所得隔差의 擴大, 公害問題등의 激成을 보게 되었음은 世界的 現象이며 低穀價, 低貨金을 基調로한 大衆的 貧困의 深刻性은 마야흐로 한국이 直面한 時代相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 관련하여 近者 國內外에 高度成長政策에 대한 批判의 輿論이 높아지고 있거니와 문제의 解明이나 方法論의 追究에 있어서 現代的 主流經濟學에 대한 不滿의 論難이 대두되어 있음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중 이른바 經濟學의 「第2危機論」(J. Robinson)이나[1] 「不確實時代」論(J. Galbraith)[2] 등은 특히 유명하다. 그 밖에 新古典學派에 對立的인 價值意識的 制度論(G. Myrdal)[3]도 이미 나와 있으나 어쨌든 經濟學의 有效性에 대한 새로운 論爭은 불만한 情況이다.

그러면 우선 오늘의 經濟成長에 대한 批判이 現代的 主流經濟學派에 集中된 理由는 무엇인가?

첫째로 문제의 條件은 現代的 主流 經濟學(新古典學派)이 利己的 「經濟人」(homo economicus)을 想定하고, 그들에 의한 自由競爭體制下에 成長과 分配의 最大限 效果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놓여있다. 이점, 이미 「케인즈」(J.M.Keynes)의 雇傭理論[4]에서 部分的으로 否認되어 있거니와 資本主義 市場의 獨占化 傾向과 現實的 分配의 不條理에 대하여 現代的 主流經濟學이 本質的으로 對備함이 없는 까닭이다.

둘째로 現代的 主流經濟學이 成長下의 「스레그플레이션」에 부딪쳐 明快한 解明을 주고 있지 못하다. 같하자면 「인플레이션」과 失業(不況)의 同時的 進行이란 가장

* 高大教授(韓國經濟學會長 就任演述要旨)(1979. 4. 21 於 서울大)

큰 문제에 對處하여 現代의 主流經濟學이 效果的 處方을 내리지 못한 無能을 暴露한 셈이다.

특별히 한국과 같은 被支配的 後進經濟를 想定할 때 「스테그플레이션」은 오히려 不均衡成長下의 基本的 動態라 할 수 있다. 日帝下 植民地時代의 土着經濟는 실로 慢性的 「스테그플레이션」을 露骨化하였던 좋은 實例이다.

셋째로 新古典學派의 經濟學은 적어도 植民地下的 經濟成長을 實質的으로 評價할 수 없다. 우선 거기에는 말하자면 主體的 「經濟人」만이 주어져 있는만큼 植民地의 經濟의 支配關係를 內面的으로 밝히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까닭이다.

넷째로 新古典學派나 「케인즈」理論에 있어서 우리는 效果的 厚生理論을 얻어볼 수 없다. 그들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나 成長條件의 分析은 緻密한 바 있지만 일단 厚生經濟論에 들어서자 그들 내용은 完全 自由競爭下 公平한 分配의 靜態的 成立條件만을 追求하는데 그쳐 있는 것이 오늘의 過程이다.

그 밖에 現代의 主流經濟學이 「케인즈」에 따라서 非自發的 失業의 存在나 勞動의 制約된 供給法則을 受認한 바 없지 않다 하더라도[4] 그가 과연 勤勞大衆의 實質賃金과 失業의 내용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寄與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 疑問은 적지 않다. 더구나 한국의 現實에서 보는 貧富의 隔差나 非生計的 低賃大衆의 果積에 대하여 正當 效率의 分析의 成果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實態이다.[8]

더욱 不幸한 現實로서 現代의 主流經濟學이 내세운바 能率主義와 大企業主義의 發展이 매우 「소시얼 덤핑」과 連結되기 쉽고, 나아가서 國際競爭의 激化와 더불어 軍備擴張을 일으키기 쉽다는 점, 많은 批判論者의 지적한 바와 같다.[9] 美國의 越南戰爭을 契機로 하여 經濟學의 論爭이 크게 反戰勢와 더불어 일어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1].

그런데 現代主流經濟學에 대한 위와 같은 論難에 대하여 그들 擁護者의 固執은 물론, 當장 反擊도 크거나 後進各國의 經濟學界에 미친 그들의 勢力的 支援은 점차 깊은 뿌리를 박고 있다.[1] 한국의 現實 또한 그의 좋은 例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어떠한 理論的 再武裝과 客觀的 評價의 基準을 찾아야 할 것인가.

II

當面한 經濟成長의 促進에 따른 社會的 諸問題에 對處하여 現代의 主流經濟學이 主體로 삼은 「人間」은 너무나 抽象的이며, 너무나 靜的이다. 말하자면 그가 明示的 또는 陰性的으로 想定한 一般的 「經濟人」은 적어도 그들 體系를 靜態化 시키고

로써 未來의 經濟的 動態나 그로 인하여 社會的 摩擦現象을 機構的으로 파악하기에 理論上 어렵게 하는 要因이다. 여기에 우리는 당연히 社會的 動態的 條件을 좀더 簡單한 「歷史的 人間」을 經濟主體로 삼아야 마땅하다. 그럼으로써 當面한 難題의 解明과 더불어 요구되는 人間厚生의 길을 基礎的으로 論理化 하는 것이 당연한 課業이다.

원래 經濟行爲의 近代의 主體로서 人間을 意識的으로 구체화한 것은 「다니엘 데 포우」의 「로빈슨 쿠루소」에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즉 産業革命以前 17世紀 英國의 近代資本主義를 일으킨 主役으로서 「데 포우」가 描寫했던 「로빈슨 쿠루소」는 그 후 「마스」(K. Marx)나 「마스 웨버」(M. Weber)에 의하여 높이 評價된 바 있었던 經濟史的 主人公의 象徴이다〔14〕,〔16〕. 그 후 資本主義의 발전이 「로빈슨 쿠루소」로부터 「웨버」의 이론 바 節制있는 「資本主義精神」을 衰退시켰음은 주목된다. 그리하여 自利的 「經濟人」이란 抽象的 理念形態를 점차 基本的對象으로 보게 되었음은 주지하는 歷史이다.

그러나 經濟學의 基礎的 對象으로서의 「經濟人」에 관하여서는 「아담 스미드」(A. Smith) 以來의 古典學派나 「마샬」(A. Marshall) 以來의 新古典學派에 있어서 각기 여러모로 認識된 바 있다. 그중 「아담 스미드」는 自然法의 思潮下에 오히려 「社會的 分業」을 重視한 것 같고, 「리카도」(D. Ricardo)에 이르러 「經濟人」은 좀더 분명히 意識된 바 있으며〔10〕 한편 가장 철저히 「經濟人」像을 구체화한 것은 이론과 限界效用 學派이었다. 이 둘에 있어서 「經濟人」이란 곧 抽象的 人間模型으로서 반드시 歷史性을 묻지 않는 利己的 化身이 된 셈이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물론 「마샬」의 折衷的 「人間」觀을 볼 수도 있다. 즉 참고로 그에 의하면

「暫定的으로 結論지어지 經濟學者는 個人들의 活動을 研究하나 個人生活보다는 그들의 社會的 關係를 研究한다……經濟學者는 抽象的 人間, 즉 經濟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人間 즉 피(皮)도 있고 살(肉)도 있는 人間을 對象으로 한다. 云云」〔12〕

近者の 厚生經濟學에 있어서 역시 「經濟人」을 직접 내세우지 않으나 그러한 利己的 人間型을 排除하고 있지 않다. 이론 바 「자무엘슨」(P. Samuelson)의 厚生兩數論에 의한 때 역시 靑경 無差別 曲線上의 選擇性을 排除하지 않음으로써 「經濟人」의 主體性을 분명히 反證하는 體系的 징질이다. 즉

「個人的 趣味나 慾望은 어떠한 終局的 意味에서 自己自身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만큼 그 정도가 廣告나 習慣에 의하여 社會的으로 規制되어 있다는 주장을

볼 수 있다……더욱 注意를 요하는 점은 古典經濟學者들까지도 文字 그대로 家族以上으로 個人을 心中에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어떠한 강한 精神力이 家族內에 있어서 이들의 集團의 無差別曲線을 個人的 基礎위에 歸納시키는 主權의 神通性 같은 것을 追求할 수도 있겠지만 云云[6].

한편 「막스」 역시 당장 「經濟學의 出發點」이 人間諸個人的 物質的 生産」이라든가 「社會를 形成하여 生産에 從事하는 人間 諸個人이 經濟學의 研究對象」[13]이라 하여 人間論에 言及하되, 대체로 「스미드」에 따라서 生産關係의 分業的 參與者로서 經濟學의 人間을 보고 있다. 따라서 그 또한 經濟主體는 社會的 分業(「自然發生的 分業」)의 擔當者인 人間型이다. 그렇다하여 그가 利己의 人間性的 「經濟人」을 排除한다고 할 수 없다. 요는 그에 있어서 社會의 背景은 매우 強調된 가운데 그의 經濟主體에 있어서 「막스 웨버」의 「資本主義精神」을 적극적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13], [14]

III

우리의 經濟學이 이미 「經濟人」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이 「歷史的 人間」이 되어야 함은 저의 분명하다. 거기에는 필경 「로빈손 쿠루소」로부터 「經濟人」이나 現實的 傳統主義를 어느 정도 종합한 人間類型이 豫想되는 情勢이다. 그러나 그도 반드시 現代의 主流經濟學의 難題를 解明함에 寄與하거나 厚生經濟學이 요구하는 價値判斷의 便宜性을 提供함에 意圖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스스로 歷史적으로 얻어진 性格의 것이며, 따라서 다시 歷史와 더불어 變動하는 要因이란 점에 우리의 關心이 追加되는 論理이다.

우선 現實的 經濟主體 그것이 抽象的 人間인 「經濟人」에 머물러 있게 될 때 결과적으로 「動物的 人間」을 다루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만큼 그의 經濟學은 모름지기 自然科學의 범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적어도 그 方法論에서 技術的 可能性이 짙어지게 될 뿐이다. 따라서 그는 처음부터 價値的 判斷의 世界를 떠날 수 있다는 점에서 精密性과 客觀性이 기대될 수 있으나 社會的 現實性이 묻어지고 人間의 厚生の 條件에 관한 한 더욱 큰 制約을 면할 수 없다. 人間의 價値判斷은 적어도 厚生經濟學에서 不可避하거나 그것은 歷史的 文化的 比較分析에서 비로소 共通點이 발견될 수 있는 까닭이다.

물론 우리는 科學의 客觀性에 비추어 「價値自由」(Wertfreiheit)의 概念을 輕視하지 않으나 적어도 現實的 經濟問題의 因果關係를 歷史的 比較의 方法에서 깊이

追求하면 追求할수록 社會科學의 範圍와 內容은 豊富히 얻어질 수 있고, 그 가운데 요구되는 客觀的 價値評價의 共通點 또한 스스로 얻어질 수 있다. 그러한 批判的 方法없이 厚生經濟의 實質的 理論成立은 도저히 不可能視되는 문제이다. [6]

지금 우리는 「아민슈타인」의 相對性原理에서 發揮한 抽象化方法과 一般化方法을 自然科學의 方法論의 精華로써 是認하면서도 그것이 끝까지 經濟學의 方法이 되리라고 보고 있지 않다. 前者에는 물론 歷史的 比較過程과 價値的 評價의 餘地는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 우리의 「歷史的 人間」역시 經濟成長이 가져온 時代的 動因에 의하여 變貌分化되는 빔주인만큼 將來의 歸趨를 보는 우리의 眼目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필경 分化된 「歷史的 人間」을 動態的으로 보는 것이나, 그것은 당연히 隔級的인 될 수 있고 또는 職業的인 될 수 없지 않다. 그중 企業과 勞動의 分化는 오늘날 하나의 뚜렷한 典型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無意識中 하나의 「經濟人」이 그의 性格을 유지한 채 經濟行爲의 主人公이 되어있는 가운데 經濟政策의 對象이 되고 있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비록 同一人이라 하더라도 經濟的 反應은 社會的 地位, 環境이나 歷史的 背景에 따라서 구구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代의 經濟理論이 이러한 條件을 理論의 形成에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것인지 疑問의 餘地는 많다. 예컨대 「파레토」最適 (Pareto optimum)을 受認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靜態的이고 非社會的, 個人動不의 抽象的 模型이 되어 있을 뿐이므로 그것이 어느 정도 現實性을 갖는 것인가, 그의 理論의 限界性이 自명한 내용이다.

필경 우리의 經濟學은 처음부터 巨視的(macro)이니 또는 微視的(micro)이니 하여 分類하는데 구체적 意味는 있지 않고, 理論과 歷史와 實踐의 條件의 綜合的 認識이 本質的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 또한 우리의 經濟主體가 「歷史的 人間」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參 考 文 獻

- [1] J. Robinson, "The Second Crisis of Economic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2
- [2] J. Galbraith, 「The Age of uncertainty, 1977」
- [3] G. Myrdal, 「Against the Stream, 1973」
- [4] J. Keynes,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 [5] P. Samuelson, "Maximum Principles in Analytical 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72
- [6] P. Samuelson,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1947」(Ⅷ Welfare Economic)

- [6] P. Samuelson, 「Economics, 10th ed., 1976」 (p. 824)
- [7] 金俊輔, 「韓國資本主義史研究, Ⅲ, 1977」
- [8] 金俊輔, 「韓國經濟斗 賃金構造, 1979」
- [9] 宇澤弘文, 「近代經濟學の再檢討, 1977」
- [10] D. Ricardo,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1817」
- [11] A. Smith, 「The Wealth of Nations, 1776」(第1編 第2章)
- [12] A.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1890」 (p.p. 25~27)
- [13] K. Marx, 「Zur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1854」(附錄序說)
- [14] K. Marx, 「Das kapital 1867」(第1卷 第1章)
- [15] M. Weber, 「Die Objektivität sozialwissenschaftlicher und sozialpolitischer Erkenntnis, Archiv Sozialw, Bd. 19, 1901」
- [16] M.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1904~5」
- [17] L. Robins, 「An Essay on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 1947」